

연중 제 12 주일

기도서 376 면

제 1 독서 : 욥 38, 1. 8-11
제 2 독서 : 고린 후 5, 14-17
복 음 : 마 르 4, 35-40

숲 정 이

발행 :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 사 목 국
인쇄 :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⑤ 5098 ⑤ 3201

□ 강론



땅콩 속의 하느님

임 기 봉 신부

조오지 워싱턴 카아버는 약 백년 전에 미국 남방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소년시절의 기도는 일생에 중대한 사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은 네게는 너무 큰 문제이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카아버는 “그러면 저는 “생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느님은 “그것도 역시 네게는 큰 문제이다.”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민하던 카아버는 마침내 “그러면 하느님,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오니 땅콩과 감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느님의 대답이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모두 일러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은 네게 알맞은 문제인 줄 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후 하루는 땅콩 한 알을 손에 들고 하느님께 “이 땅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느님의 대답은 “너는 머리를 가졌으니 네가 직접 찾아 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카아버는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여 땅콩에서 무려 3백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땅콩 한 알 속에서 하느님의 창조와 신비를 깨달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신앙 체험입니다. 카아버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찾았고 자기의 사명인 일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에게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한 신적 권능을 보여 주시며 믿음을 통해 당신에게 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인생의 갖가지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사명을 찾을 때 그 일터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며 이 믿음은 나의 생활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하여 줄 것입니다.

(해성 중 · 교종교감)

□ 격려사



축하와 감사!

김 환 철 신부

교구 후보 숲정이가 어언 창간 10돐, 그 500호를 맞음에 우선 함께 커다란 기쁨과 영광의 인사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구 후보 제호(題號)를 굳이 ‘숲정이’라 이름했던 의미가 오늘 그 자취를 돌아봄에 새삼 교회 형극의 역사를 대하는 양 더욱 감격스레 돋보입니다.

숲정이는 예로부터 의로운 자들의 피를 뿌린 형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거진 숲 속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자들처럼 그들은 땅기와 도끼로...”란 시편 73장에서처럼 이 누갈다 동정부부와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숲 속에서 서슬퍼런 칼날에 참수하셨으니 ‘숲정이’야말로 이교장 순교형장의 대명사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후보 10년의 숲정 속엔 그 이름이 말해주듯, 마치도 형장에 끌려가는 순교자처럼 찢기움에 굴하지 않고 의로운 주님의 열을 지켜왔음이 심히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둔 지금, 성직자도 아닌 평신도에 의한 복음전파를 한창 우러르고 자랑한다면, 숲정이가 10년사를 되돌아 볼 때, 여기 뿌린 교우들의 숨은 땀과 노력 또한 교구사에 빛날 업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숲정이가 창간 당시, 한 공명 주교님이 광주 대교구장으로 전임되시고 공석중인 교구장 직분을 김 재덕 주교님(당시 신부님)께서 대행하고 계시면서 창간 축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흐른 오늘 또 교구장 공석 중에 본인이 10주년 기념 격려사를 하게 되니 이 역시 교구의 애환을 보는듯 감회가 깊습니다. 진정코 숲정이는 앞으로도 화로 속의 불씨처럼 연연히 주님의 열을 담아 활활피어 오르리라 믿습니다.

오늘을 맞아, 그동안 숲정이를 가꿔온 형제들—특별히 창간 당시 주간이었던 조성호 선생님, 우리의 ‘소리’를 대변한 한상갑 선생님, ‘요십이’ 만화의 김 병오 선생님, 그리고 현재 편집을 주관하시는 김 봉희 신부님과 편집실 직원, 보광출판사 제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교구장 직무대행)

* 숲정이가 500호 발간을 축하 합니다 *

—교구 신자 일동—



500호가 나오기까지의 뒤안길

한 상 갑

□ 교구보(敎區報) 숲정이의 발걸음

지금부터 499주 전인 72년 12월 3일, 전주시내 6개본당 합동 주보가 '숲정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발행인 신부(김 영일)는 전주시내 본당 일치의 구실 접을 이루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교구장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던 김 재덕 주교님(당시 신부님)은 "복음선포의 길잡이"가 되라고 축사를 했으며 교구 평신도를 대표한 사목협의회 송 영선 회장은 "평신도의 광장"이 되라고 박수를 보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구보로까지의 발돋움을 기대하면서.

기개의 조점이 1지구(김제·정읍·고창·부안·신태인·수류)의 합류에서 시작되었다. 1년만에 이루어진 1지구의 합류는, 숲정이 창간 2주년을 앞둔 74년 11월 10일에 전주 교구보로 그 역할을 바꾸게 했다.

이러한 성장을 더욱 돋보이게 뒷받침한 것은 430호가 만들어진 81년 2월 15일까지의 숲정이가 평신도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0월 유신이 시작된지 1개월이 조금 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숲정이가 창간되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제 숲정이는 사목국 편집에 관리국 인쇄라는 명실공히 교구보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복음선포의 길잡이요 만남의 광장

현재는 복음선포에도 홍보수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추어 탄생한 숲정이는 복음선포의 길잡이 구실을 맡아 그 소임을 다해왔다. 1면의 강론은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2면과 3면은 교리에 대한 토막상식, 신앙인의 상식, 신앙서해설, 전례해설 등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찌게 했다.

또한 3면과 4면은 교구내의 제반 소식과 각 본당의 정보를 교환해 함으로써 일치와 형제애를 다지게 했다. 시시로 달라지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8월지 4면의 주보로 다루자니 부족함은 컸지만, 그런데로 우리의 걸음을 덜어주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고통받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자고 호소하여 뜻을 모은 일은 형제애를 나눈 사랑의 결실이 아닐 수 없다. 병고에 신음하는 어린 김 준수군의 치료비를 보태는 일이라든가, 나병으로 신음하는 삼례 익산 농장에 공소를 세우도록 돕고, 함열 상지원 공소의 수리비를 보태준 일이 그 하나이다. 또한 동일 방직에서 쫓겨난 근로자를 돕기 위한 모금과 정의구현을 위한 사랑의 모금도 빼놓을 수가 없다.

□ 소리·요십이·숲정이 산책

숲정이는 73년 9월 16일부터 교회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광야의 소리를 대신하겠다는 자세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확성기의 방향을 교회 밖으로 돌리게 하여, 그 전초작업으로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뒤에 과감하게 이 주일의 미사해설을 대신하여 '시대의 정표 소리'를 내기로 했다.

조그마한 주보이지만,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작했던 만화(요십이)와 만평(산책)이 차지한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특히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 시노트 신부에 대한 강제 출국지시, 3·1절 기도회 사건, 함평 교구마 사건, 동일 방직 사건, 7·6사태, 노풍 피

해보상 요구, 오 원춘 사건, 박 창신 신부 피습 사건 등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사건들에 대한 풍자적인 그림들은 언론 부재 시대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남았으며, 크나큰 교훈을 주었다.

□ 어두웠던 이야기들

숲정이가 걸었던 10년의 역사는 험난한 자갈밭이기도 했다. 때가 때인만큼 묻혀지는 신음소리를 대변해야 했기 때문이다. 슬하에 실렸던 성명서와 결의문, 어떤 때 1·2·3면을 몽땅 채웠던 '3·1 사건 공판 방청기' 등이 바로 그것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관계 당국과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77년 6월 26일자에는 경향잡지(일부 교구에서는 회수됨)를 인용하여 실은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하며"라는 문구를 매적으로 지워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배달 안된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10·26 사태 이후에는 강론이 3회, 소리가 2회, 요십이가 12회, 산책이 5회에 걸쳐 일부 삭제 내지 전면 삭제가 되었다.

□ 감사의 말씀

사실 이렇게까지 숲정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7만여 교형자매들의 뜨거운 후원이라고 믿어 감사드린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일치의 모습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편에 서야 할 일이 많고, 또 많을 것이다. 숲정이라는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더욱 뜨거워진 마음의 몸짓이 필요할 때 추측거리지 않는 일이 숲정이의 성숙을 돕는 일이라고 여겨 덧붙인다.

□ 500호 기념 숲정이를 거두자

숲정이 편집실은 500호 기념사업으로 압축된 숲정이를 내놓기로 했다. 그간 실렸던 내용들을 재편집하여 제1부 강론 모음, 제2부 전례와 교리상식, 제3부 격동기의 교구 10년사(소리·요십이·산책 중심으로), 제4부 만남의 광장(독자 투고)으로 엮었다. 350여 페이지로 엮여 질 이 책자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줄 것은 말할 것 없고, 역사의 자료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2천부 한정판을 만들 수 밖에 없어 교구내 모든 교우 가정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 (구하고 싶은 분은 미리 본당 사무실에 신청해두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숲 정 이 산 책



품 품 속에서도 잘 자랐다

□ 우리들의 주보

진리의 햇불

모 보 일

교구보 숲정이를 처음 받아본 것은, 80년 7월 6일, 제 398호이다.

세상을 되는데로 살아 온 내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회의에 빠져 있다가 성당을 찾은 것이 숲정이와 초면 인사를 하게 됐다.

그날 숲정이에선 여산성당의 박 창신 신부님 피습사건을 다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여 년간 언론에 종사, 글을 쓰며 사회정의의 불부르렀던 내 모습이 발기 발기 찢기며 무참하게 일그러지는 순간이었다.

부정과 부패를 보고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물쭈물 넘겨버린 일들, 약자편에서 일하기 보다 강자편에서 일해온 것들, 그 밖에도 말 못할 사정을 내세워 썩 불 엄 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쳤다.

영과 육이 모두 썩을대로 썩어버린 죄인을 야훼 하느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용서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확신했다.

72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예 고고의 소리를 내고 교회 안팎의 술한 일들과 정치상의 불안정, 재정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도 10년동안 한 주일도 걸르지 않고 500호를 발행케 된 숲정이가 더욱 우리안에 일치됨 이뤄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우는 교구보가 되길 빈다.

(노송동 본당)

기다리는 마음

이 백 호

금요일이 되면 기다려지는게 있다. 마치 석간이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 창문 쪽으로 목을 길게 늘이고 서성릴 때처럼 ‘숲정이’를 기다리게 된다.

나는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다. 요십이와 숲정이가 산책, 소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첫째이리라.

사람은 누구나 사실대로 알고 행동해야 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지나는 우리의 주변은 그것을 려락하지 않았었다. 알 권리가 있으면서도 귀먹고, 눈멀고, 병어리가 되었던 기나긴 세월들, 가슴 깊이 쌓인 응어리들을 속 시원히 파헤치는 ‘소리’의 의도는 재빠르게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숲정이가 산책은 잔디 깔린 정원인가 하면 산뜻하게 포장된 도로이기도 했다. 요십이가 그려내는 만평은 너무도 우리와 가까워 더욱 친근해질 수 있었다고 본다.

작은 지면에 짜임새 있게 편집된 여러 내용들은 읽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내용이 쉬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본다.

앞으로 무궁한 번영과 지평을 누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주시 효자동)

한 모금의 생명수

신 수 현

어떤 어린 학생이 “샘물이 무엇이지?”라는 질문에 “예, 살아있는 물입니다.”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두운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강한 생명력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요즈음 우리는 살아있는 물에 대한 심한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환경의 오염으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독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원함과 깨끗함과 푸르름을 잃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살아있는 물이 있습니다. 혹심한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았고 지난번 홍수에도 흠탕물이 되지 않았습디다. ‘사해’같이 고여 있지 않고 ‘갈릴리아’ 호수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물이며, 육체보다는 영혼의 갈증을 치료하는 데 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혹 목이 타시지는 않습니까?

시원한 ‘숲정이’의 나무 그늘 아래 영원한 생명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지친 이웃의 어깨를 부축하여 우리 모두 그곳으로 찾아 갑시다. 그리하여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고 주님안에 하나되어 만납시다.

(중앙 본당)

숲정이와 데이트를

오 현 선

세상이 시끄럽다고 말할 하며 어수선한 세태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공허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벌써 숲정이는 500호가 되었다. 거대한 교목의 성장을 지켜 보는 듯한 착각에 잠시 빠져 본다고나 할까...

하느님이 당신의 신비를 계시하시기 위해 말씀의 문을 여시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무엇이 있기 마련이다. 가톨릭 교리와 윤리에 일치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전파하며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바로 해석하려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숲정이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 교회의 태변자요, 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인 숲정이의 500호를 기념하면서 작은 지면을 값지고 알차게 꾸며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숲정이가 말을 하려 해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숲정이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어도 나누어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의 자녀들은 모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나누어 줄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톨릭 여학생관)

□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현주소

□ 교구 평협의 방문 사도직,

일치와 형제애 증진은 물론 정보 교환의 의의도 커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敎區 平協)는 본당 사도회와 교구단위 단체의 협의회이다. 처음에는 사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교구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일을 해왔다. 교구장 착좌식에 따른 행사 처리가 그 하나였고, 평협으로 조직이 바뀐 뒤에는 그간 다섯차례의 순교자 현양대회를 치뤄내기도 했다.

제2단계에 접어든 평협은 방문 사도직을 통해서 일치와 형제애를 다지고, 정보교환에 역점을 두어 주말마다 본당을 찾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수류와 원평(6월 12일), 여산·금마·삼례(13일) 본당을 방문하고 사도회 임원은 물론 본당 신부님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교구에서 실시하는 감사나 확인의 차원으로 오해아닌 오해를 하기도 했으나, 격의없는 대화는 헤어짐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6월 중의 방문 사도직이 끝나면, 계획된 평협 회보 발간을 통해서 각 본당의 실정과 활동들이 교환될 예정이다. 평협운동의 활성화에는, 제1차적으로 각본당 사도회나 교구단위 단체의 성실하고 활기찬 활동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평협을 중심으로 서로 알려지고 유대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연관이 미흡하다. 이번 방문 사도직을 계기로 보다 유기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평협은 사상 누각도 아니고,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평협은 곧 7만 평신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본당 사도회나 교구단위 단체의 임원은 물론, 모든 평신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체이다.

□ 5개 본당에만 성가대가 있는가?

지난 12일에 각 본당 성가대장 회의가 있었다. 교구 합창단의 발표회 준비에 대한 협의와 교구 성가대 연합회의 재정비를 위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본당은 노송동·파티마·창인동·김제·황동의 5개 본당 뿐이었다. 대학생 연합 성가대를 포함해서 11명의 참석자들은 “발표회를 갖을 필요가 있다”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했다.

공문으로 회의 소집을 알렸고, 교구보인 숲정이에든 기사로 다루었건만 어찌서 출석율이 그리도 저조했는가? 서로가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도 그렇다. 아직 별로 회신이 없다. 예술활동 일선에 있는 평신도 자신도 본당에 알려야 하고, 본당에서도 수소문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또 교구 평협에 알려야 하겠다. 예술인이라 함은 문예·미술·음악 분야의 종사자 및 전공인을 말한다. 서로를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이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다양한 조직 사도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구조화된 조직 사회에서의 사도직은 역시 그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구의 현황은 기껏해야 의사회와 약사회가 조직되었을 뿐이다.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지 20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교구에도 교수회·교사회·실업인회·언론인회 등 다양한 전문 조직 사도직이 필요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평신도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200주년의 의미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침체해 있는 빈첸시오회도 이 기회에 활력을 되찾아야 하겠다. 아울러 연예인회도 빨리 교구장의 인준을 받을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다. 조직 사도직이 활성화 될 때 우리는 이 사회에 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심이 (463) 김병오

최신부공판
방천권을 겨우
120장 발행
했다는데...

시대 감각이
없군요!

그럼 몇장을
발행했어야
좋겠나구요?

요새는 억단위로
노는 세상이니까
1억2천장은
발행해야지요

꽃과 음악
휴식이 있는 곳

전주 꽃 직매장

(구.진선미 꽃집)

개업식에 성황을 이루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여러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전 화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버 킹 겐 런 던 포 그



간이복·성인용 (주) 유 율리안나
아동용·주니어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워 크 엔 드 삼화약국 옆
전화 ☎ 4451

신진 가스 상사

신속배달
가스렌지
기구시설
수리상담
전화 ☎ 5448
1071

K. B. S 전주방송국 앞
최 안 드레 아

□ 개업
흔레·회갑·선물·장식

고전 동양 매듭

매듭작품, 재로판매 및 수
강, 벽걸이, 발걸이, 장걸
이, 목걸이, 노리개...
도 교육청 정문 바로 앞
매듭 전문 연구실
임 영 수(테레사)

J.O.C 탄압을 규탄한다 !

이미 지난 주보(499호)에 보도한대로, 전북에 J.O.C 탄압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빚어졌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노동자 탄압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정당한 종교 활동과 교회까지 침해하고 탄압하는 처사임이 드러났다.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 총회를 소집, 3시간여에 걸친 사건의 진상 보고와 검토, 속의 끝에 "이번 사건은 엄연한 J.O.C 탄압이요, 계획적인 교회 음해 책동"임을 만장일치로 규정하고, 본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결의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반 행동 추진계획과 단계적 활동대책은 상임위에 완전 위임, 그 결정에 온전히 따르기로 했다. 전 교구들의 관심과 보다 굳은 일치 협력 있으시기 바란다.

본 회의에서 다뤄진 사건의 경위와 진상규명 내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발단과 경위

본 J.O.C 탄압 사건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원주사태(최 신부 구속사건), 교회 사회선교 협의회 성명 등을 왜곡 비방한 정부 보도에 따라, J.O.C를 좌경 불순시 하고 억압 하려는 지시에 의해 지난 4월 20일부터 표면화 되기 시작, 26일 도에서 소위 노동조합(태창섬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발단 됐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J.O.C 회원들과 심지어는 신부까지도 용공시 하며 회사 내외에 비방 선전하다가 끝내는 근로자들을 선동, 5월 22일 난동을 부리게 하고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J.O.C에 씌워 회원들을 해고, 축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리 태창섬유(주) 회사에서는

현재 J.O.C 회원인 박복실, 소기화양이 해고 되었고, 문진주양등 7명이 무단 축출 당했다. 또한 전주 전북여객(주)에서는 J.O.C 전북연합회 회장인 오창석군이 억울하게도 J.O.C 회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해고 상태에 있다.

2. 사건의 성격과 정평위 활동 경과

사건의 주이를 주시해 온 본 정평위는 그동안 비록 정부의 빛나간 정책과 불의한 지시로 인한 탄압의 흉계임을 감지 하면서도 본 고장의 평화와 모두의 안위를 위해 관계 기관들로 하여금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토록 촉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교회의 성의를 무시했고, 사건을 악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부득 총회까지 소집, 진상규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그간 수립된 제 부당사태 자료들과 특히 근로자들의 호소문에 의거 지난 6월 10일 회사에 즉각 조사단을 파견, 공정한 현장확인 조사를 착수했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총회의 최종결의를 보기에 이른 것이다.

3. 교구 정평위의 결의

"우리는 본 사건이 명백한 J.O.C 탄압이요, 따라서 교회의 종교활동을 침해한 중대한 교회 음해(陰害) 행위라고 단정하고, 이에 노동자의 권익과 교권수호를 위한 활동 대책과 규탄방안을 강구키로 결의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행동이나 대책을 상임위에 일임, 그 결정을 따르도록 함의 다짐한다."

1982. 6. 15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교 구 의 교 세 현 황

본당 39개, 공소 198개

1981년 12월 31일 현재

본 당	신 자 수	본 당	신 자 수	본 당	신 자 수
고 창	1,081	금 마	736	상 관	966
김 계	2,918	삼 배	1,852	순 창	678
부 안	1,915	주 현 동	1,495	임 실	1,021
수 류	1,097	창 인 동	3,467	무 주	966
신 태 인	1,629	중 앙	4,898	장 계	1,678
원 평	582	노 송 동	3,241	장 수	857
정 읍	2,681	덕 진	2,473	진 안	1,595
대 야	1,018	복 자	1,794	한 들	1,271
둔 읍 동	2,111	서 학 동	2,092	여 산	1,139
오 룡 동	1,733	숲 정 이	1,338	용 안	1,201
월 명 동	1,649	전 동	3,564	합 열	2,316
팔 마	2,090	효 자 동	1,238	화 산	1,229
고 산	2,388	남 원	2,066	황 등	1,315

교구총계 : 남 30,305명, 여 39,073명 계 : 69,378명

□ 개 업

성서를 읽지 않으시렵니까?

쉽게,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생 환영

완 전 속 독

전북은행 노동동지집 앞 이층

전화 3-7088

이 강 심 (엘리사벳)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용)

남 베로니카



코오롱 맨스타
효성 맨하탄

전주특약점

바바리·콤비·잠바·T
셔츠·남방·사파리·바
지·맨하탄 Y셔츠·빅
타이 ★ 국민카드 가맹점
전화 ④ 4561
김돈중(아드리아노)

□ 전교의 현장

꿈 속에 산다

사도직은 겸손과 희생으로

송 영 환

강 신 중

먼저 숲정이 창간 500회를 축하합니다.
 내게 주신 하느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어느 하나 제
 대로 그 뜻을 채워드릴 흔적이 없는 죄생이 오늘날 감히
 회장이란 직분까지 맡고 있어 민망함을 감출 길이 없습
 니다. 그것도 한 두해 아닌 오랜 세월을, 제 생각엔 회중
 이라 굳이 이르지만... 이 조차도 이젠 님의 뜻이라 고히
 받들고 삽니다.

생각하면 사뭇 진방했던 날, 벌써 신축 본당만 두번째
 말아 오직 주님 성전에 대한 열망으로 뛰고, 소리치고, 내
 치다 보니 본의 아닌 군림으로 되려 형제들에게 집단 되
 지 않았는지 못내 저어 됩니다. 사도직의 근본은 그리스
 도를 닮은 순수한 희생과 봉사로 가없이 쏟는 형제애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교회에 맡겨진 사도직의 원천은 성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므로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한 15, 5) 하
 신 주의 말씀대로 평신도 사도직의 풍요한 결실은 분명
 그리스도와 공동체와의 관계 즉 일치에 달려 있다.»(평
 신도 교령 1장)는 말씀을 혼자 새겨보곤 합니다. 정녕
 이와같은 정신이 우리 안에 질어진다면 구원을 향한 우
 리의 사도직은 더욱 생기 있어 보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린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미미한 지
 체, 발바닥과도 같은 겸손과 인내와 지구력으로 주님과
 교회를 떠받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힘이
 우릴 감싸주시리라 믿으면서... 선교 200주년을 앞둔 오
 늘, 다시 한번 선열들의 희생과 겸손에 고개 숙입니다.
 (오룡동 회장)

허허 벌판 넓다란 운동장에 무성한 잡초가 흙을 추던
 원평 성당에 발 붙여 생활한지도 벌써 5년째나 된다. 그
 간 본당 사무에다 전교사, 교리교사, 오르가니스트, 거
 기에다 청소부까지, 또 어떤 할머니가 붙여준 ‘종치는
 머슴아’의 일...하지만, 어느 하나 제 능력 갖추지 못한
 부적격이 오늘까지 나를 쫓는다.

그러나 뜨거운 피약벌 아래 진신자가 합심하여 제초
 작업에 열을 올리고 모래 자갈 땅에 수천 주의 나무를
 일일이 곡괭이로 파서 심으며 심한 가뭄 중에 본당신부
 님께서 손수 물을 주시던 일...특히나 성전 신축을 준비
 하면서 각 단체별, 개인별로 분담, 매 주일 발을 메며
 땅콩 농사를 짓고, 공사중엔 모두 술선 수범하여 미역과
 종이, 미원 등을 들고 금산면 뿐만아니라 이웃 본당, 공
 소 산골짜기까지 헤메던 어려움도 겪었다. 그외에 또 뼈
 와 살을 깎으며 헌금한 본당 신자들의 노력과 은인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한채 앙상한 뼈대만 드
 러낸 성전의 모습을 아쉬워했던 일도 잊을 수 없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공사비와 비뚤 마련의 꿈이 한
 사코 이 작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지만, 은인들과 신자
 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볼때면
 잠시 동안 뿌듯한 기쁨에 이젠 아무에게라도 의치고 싶
 어진다.

“와서 보시오. 우리 신자들이 이룬 성전이요!”라고.

엊그제 처음 평형 임원들의 사무방문 때 원평에 이러
 한 성전이 들어섰음을 감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전심해
 야 할 일은 오로지 전교임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
 다. 우리 본당과는 하늘의 별을 따는 일 만큼이나 멀게생
 각되는 수녀님을 모시는 문제도 이젠 시간 문제이리라.
 원평에 수녀님을 모신다는 때문인지 오늘도 펜스레 실려
 어진다.
 (원평 본당)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강 데 레 사 수녀

그곳이 어디인데 네가 꼭 그곳을 가야한단 말이나?
 하시면서 몇년을 초상집 같이 눈물로 보내시던 조부모님과
 형제들의 아픔을 뒤로 남겨둔 채 시작한 수녀원 생활
 도 어언 17년. 주님 사랑의 부르심에 매일매일 재촉 받
 으며 주님의 아픔에 동참했던 본당 전교생활도 벌써 10
 년이 넘었다.

회고해 보건대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나는 아무 것
 도 한 것이 없다. 다만, 한가지 영원한 사랑의 집에서
 직접적인 사도직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이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아픔
 을 안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어느날 본당의 한
 아가씨가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수녀님! 지금 보건소에서 오는 걸이예요. 의사 선생
 님께서 급성 폐렴이니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말을 채
 잊지도 못한채 눈물을 쏟으며 가족의 부양까지 걱정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다. 공장의 탁한 공기속에서 6년간
 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중노동을 해가며 5명의 가족을

부양하던 23세의 처녀였다. 약 한 봉지에도 부담을 느껴
 야 하기에 걸디다 못해 찾은 약국에서 병원으로 빨리 가
 보라는 재촉을 받고 보건소로 달려간 결과였다. 들이는
 성체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
 과 생각보다 쉽게 마산 요양소에 무료로 갈 수 있게 되
 었다. 그리고 높고 험한 산 중턱에 사는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교형 자매들이 배풀어 주는 크고 작은 정성들을
 나르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였다.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당신 자녀들과 함께 웃고 울
 던 나날들은 주님께로 나를 키워주었다.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매달릴때 당신께서는 귀찮
 아 하지 않으셨지요?” 저의 작은 정성과 노력에도 주님
 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에 쉽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또
 이를 수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
 에 살아있는 그날까지 당신의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부축해 주세요.”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자매지 「어린이 주보」 발간 예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500호다. 이제 술정에도 열 살, 더울치곤 퍼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자매지를 바라는 마음들이 크다. 그래서 교구에선 교리교사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미 준비 작업에 돌입, 곧(8월중) 예쁜 어린이 주보를 탄생시킬 계획이다. 교구내 모든 교리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보다 큰 관심과 협력을 미리 부탁드린다.

1·4지구, 정읍, 고창 중·고등 학생 친선 체육대회

제 1지구 소속 부안, 원평, 수류, 김제 본당 교우 300여명은 김제 성당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배구, 농구, 척사 종목의 종합 우승은 김제 본당이 차지했다.

1지구 전체가 참석치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이 대회를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지구 차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기를 모두 갈망하였다.

같은 날 제 4지구 중앙, 진동 등 8개 본당 역시 중·고등학생 체육대회를 해성 고등학교 교정에서 개최했다. 전 날 저녁 잔뜩 퍼주었던 날씨가 아침이 되자 빗방울을 뿌리기도 했지만 900여명의 활기찬 청소년들의 열기에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 듯 알맞게 땅을 추기는 정도에 그쳤다. 농구, 배구,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 꽤 다채로웠던 종목의 종합 우승은 서학동이 차지했다. 또 한 곳 정읍과 고창 양 본당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폐어 플레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규칙 준수와 기사도를 익히게 되는 체육대회는 본당간의 친선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젊음을 한껏 꽃피

우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하느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함성과 기쁨의 미소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귀중한 하루였다.

장계 본당 교육관 개설

장계 본당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재교육에 역점을 두고 일심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앙 재교육을 위한 교육관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6월 24일 베네티성서 연구반 37명의 입학식으로 그 첫 모임을 갖게 된다. 약 60명 정도 수용 할 수 있고, 책상까지 마련되어 있어 하느님의 신비를 탐구 할 열면 학구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교육관은 신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한 전자 기술 학원을 세워 지역 사회 교육에도 봉사할 계획이다. 맑은 대자연과 조용한 분위기의 장계 본당 교육관은 오염에 찌든 도시 교우들에게 신심 양면의 원기를 회복 할 피정 장소로도 사용되어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류·황등 본당 모내기 봉사

교구에서 제일 역사가 깊고 구 교우촌을 이루고 있는 수류 본당 교우들과 황등 본당 교우들은 본당 모내기 작업에 솔선하여 봉사, 주님께 기쁨을 드렸다. 폼배팔이 손이라도 빌어 쓰고 싶은 요즘의 농촌에서 본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교우분들과 학생들께 감사드리며, 그 고운 마음으로 심겨진 모들에 주님께서 축복의 단 비와 햇빛을 알맞게 내려주셔서 알곡이 줍줍히 맺힐 그날을 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술정이를 정독(精讀)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평화 가득하시길... (김원)

술 정 이 산 실

우리 얼굴과도 같은 교구보 술정이 500호를 기념하며 기쁜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발돋움을 위해 한마디 제언하고 싶다.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편집에서부터 발송까지의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공지 사항 때문에 매주 전화통과 씨름하는 것은 집어 두교라도 원고 부족과 그 질 문제에 대한 걱정은 편집실의 만성적인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 제자리 걸음을 박차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成)

산실이니 만큼 진통이 따름은 너무 당연한데, 술정이 500호를 낳은 진통은 전격적이라고나 할까 번개불에 뿜구어 먹는다는 얘기를 실감하게 한다. 원고 마감일 다음 날에야 원고가 도착하여 과연 술정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가 극히 의심스러웠던 화요일 오후 “술정이가 나올꺼예요? 나오긴 나오겠죠.” 대장님이 책임질 일이라 미루어 놓고 마음 편히 군산 상고 TV중계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제 마지막 손질을 끝내고 인쇄소에 넘겼으니 나올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언론인을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면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순응해 본다. (프)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 食品, 土龍
(聖 베네딕트 수도원 제조)

성 모 土 龍 셴 타

(환, 정제, 갈색, 액기스)

◎ 이리특약점 : 이리시 창인동(명보여관 앞 3층)
전화 ② 8 2 5 3

◎ 전주 :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② 8 0 9 1
김 미 카 엘

주단·포묵(훈수·희갑옷)
갑)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벤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릴로)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남자 전 전체모임(대학생·청년·고등학생): 일시-20일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 제4지구 교리교사 릴레이: 일시-27일 오후 6시, 장소-노송동성당, 주제-어린이 후보, 하기수련회
- 제2지구 울드레아: 일시-25일<금> 오후 2시, 장소-팔마성당
- 중·고 연합회 회장단 회의: 일시-6월 20일 오후 1시, 장소-카톨릭 센터 강당
- 축! 영명: 21일-이태주(알로이시오) 신부님, 24일-김봉희, 왕수해, 한기호(성 요한 세자) 신부님
- 전화번호 변경: 무주 천주교회-사무실 2308번, 수녀원·유치원 2398번
전화 증설: 호자동 천주교회-수녀원 ④4804, 노송동 천주교회: 사제관 ④0969, 사무실·수녀원 ④7032

(중앙)

전화 ④1711~3
주임 신부 문점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사도 박인호

- ※ 성경읽기: 호세아서 1장~12장
- 중앙성당 25주년기념 성전건립: 기도합니다!
신입합시다-본당신부님께 전화 혹은 면담
 - 성모회: 공식미사 후
 - 착한 사마리아인회: 23일 11시
 - 프란치스코 형제회: 27일 오후 2시 강당
 - 유아세례: 25일 10시까지 사무실에 신청
 - 병자방문: 22일
 - 남자 전체 전모임: 20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성가대 방, 대상-청년·대학생·고등학생
 - 금년 부활반(4월 10일) 영세자 모임: 27일 10시 30분
미사후, 내용-고백성사 및 기타
 - 고등학생회 시화전: 20일 오후 1시부터 강당
 - 박인호 신부님 영명축일: 29일, 많이 기도해 주체요
- 지난주 봉헌금: 657, 675원

(서학동)

전화 ④2276번
주임 신부 김병현
사도 회장 황인구

- 할머니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성심회: 24일<목> 오후 1시, 장소-성당
 - 예비자 교리: 청년반-매주일 오전 9시, 노인반-매주일 오전 11시(공식미사 후), 중·고 학생반-매주일 오후 6시
 - 가정방문: 일시-22일~24일, 대상-5·6반
 - 레지오 옥외행사 무사히 마쳤습니다
 - 차주전례: 독서-①합문권 ②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229, 320원 교무금: 145, 500원

(숲정이)

전화 ④7366
주임 신부 이대균
수·유 ④9567 사도 회장 김수겸

- 성모회 릴레이: 20일 공식미사 후
 - 요안회 릴레이: 27일 공식미사 후
 - 교황주일: 27일 특별헌금 준비 바랍니다
 - 미사시간 안내: 주일 아침미사-5시 30분, 공식미사-10시, 밤미사-8시, 주일학교 아동교리 및 미사-주일 오후 3시, 평일 아침미사-5시 30분(월~수요일), 평일 오후미사-8시(화~목요일) 금요일·토요일-7시 30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전 성가연습 10분간: 성가집을 가지고 나와 매수 한곡씩 배웁시다
 - 미사 전례담당 해설: 이귀례
독서-①송용호 ②노재두, 기도-정주복
 - 미사참례자 안내: 김경숙, 신순영, 김유리안나, 문영희, 권춘자, 최옥신
- 지난주 봉헌금: 436, 820원

(노송동)

신부 ④0969
수·사 ④7032
주임 신부 김성팔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축! 분당신부님 영명: 7월 3일(성 토마도 축일)
3년 5개월동안 저희 분당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당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매주<토> 오후 4시
 -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필립바, 골로사이, 메살로니카 전체
 -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 어머니 성가대 모임: 매주<화> 어머니미사 후
 - 대학생 모임: 매주<금> 7시 30분(저녁)
 - 전 모임: 매주<토> 오후 5시, 미사-매주일 오전 9시
 - 전화번호 추가: 사제관-④ 0969번
수녀원·사무실-④7032
9.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324, 135원

(전동)

신부 ④6208
사무 ④3222
수녀 ④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 ※ 축! 영명: 분당신부님, 27일 공식 미사후 축하식
- 성화회: 공식미사 후
 - 피미시울: 20일 오후 2시
 - 글라라 형제회·울드레아: 다음주
 - 첫 영성체 교리: 7월 2일 오후 5시 첫 모임
 - 전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혼인강좌: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셀 지도자 모임: 오전 11시 40분 신부님 방
 - 신축기금: 오영원(10만원), 장광옥·유남순·이영희·경양수(각 5만원), 김용수·임명숙(각 3만원), 최경자·유숙자(각 2만원), 김숙자·홍재준·박재근·김덕순·김순남·최기준(각 10만원)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이현재 ②최병태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태 ②유기동
저녁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정동희 ②장수철
신자들의 기도-이길용(엘리사벳)
- 지난주 봉헌금: 599, 650원

(덕진)

전화 ④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열
사도 회장 양상열

- M. B. W. 묵상회: 21일~25일까지 저녁 6시 30분~10시 30분까지, 참가희망자는 보좌신부님께 신청
 - 성모회 릴레이: 성모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할머니들께서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중고생 체육대회 협조에 감사합니다
 - 부녀회·진복회 릴레이: 다음주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복자축일 영세자 특별교리: 28일부터 7월 4일까지
※ 시간과 장소는 게시판에 기재
 - 젊은이들 모임: 27일부터, 일요일 저녁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451, 185원

(복자)

전화 ④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사도회 릴레이: 26일<토> 저녁 미사 후
 - 자모회: 21일<월> 어머니 미사후
 - 주일학교: 어린이교리-주일 오후 2시, 미사-주일 오후 3시, 미사책, 미사포(여자), 꽃 지참할 것
 - 학생회: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 미사후 학생교리(강당), 경미사-매주 금요일 저녁 8시
 - 성관성당 강당 교리실 신축헌금 신입서를 아직 못내신 분들은 속히 사무실에 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주 전례: 해설-김순정 ②정진협
독서-①정동민 ②정진협
- 지난주 봉헌금: 389, 380원

(파티마)

신부 ④0915
수녀 ④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 교육분과위원회: 오늘밤 미사후에 있습니다
 - 전례분과위원회: 다음주에 있음을 예고해 드립니다
 - 토요일 오후 8시미사는 없고, 5시에 중·고학생미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한 토요일 특전미사도 겸합니다
 - 본당 레지오 단원이 총 교우수에 10분지 1밖에 안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주일학교 자모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어머니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합니다
 - 학생교리: 토요일 학생미사 전에 최신헌생이 가르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2, 175원 교무금: 139, 000원